

“전북경제 활성화 기업 역할 중요”

도의회 농산경위, 비나텍·하이트진로 전주공장 방문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4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내 비나텍을, 원주군 용진읍에 소재한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을 방문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등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전에 방문한 비나텍은 활성탄소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장치(capacitor, 축전기, 콘덴서)를 생산하는 기업(1999년 설립)으로, 2011년 전북으로 이전했으며, 전라북도 탄소산업 발전 등을 논의했다.

비나텍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강용구 위원장(남원 2)은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후 지역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감사드리며, 탄소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전력을 다해 전북도가 확실한 탄소 기반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오영근 위원(전주 2)은 “기술력을 가진 우량기업으로써 앞으로 사세가 확장되어 인력충원이 있을 경우 도내

우수인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오후에는 1989년에 준공되어 30년간 지역을 대표해온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을 방문, 전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은 전북 원주군 용진읍에 부지36만㎡, 건물·분관 및 생산동, R&D센터와 종업원 350명(2019. 3월 테라 생산에 따라 40여명 증원)이다.

주요생산품목은 하이트맥주, 테라, 팔라이트, S, 맥스맥주, 스타우드, 퀴즈에일, 수출용 맥주, 이슬톡톡, 망고링고 등이다.

특히, 전주 가맥주제를 시행함으로써, 전라북도에 하나의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 기존 제품인 ‘하이트(HITE)’가 시장점유율이 낮아 폐쇄될까 걱정되었으나, 신제품인 ‘테라(TERRA)’를 전담 생산함으로써 생산라인 1식 증설 및 인력을 추가로 충원했다.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는 24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내 비나텍을, 원주군 용진읍에 소재한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을 방문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등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최영심 위원(비례)은 “하이트진로가 ‘전주 가맥주제’를 주축하면서 전북에서 새롭게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을 계기로 농산경계위원회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전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정부, 추경 6조7000억원 의결

오늘 국회 제출, 5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병역법 일부개정안·대체역 복무안도 의결

정부가 24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8일 협의를 열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지원, 포함지진 피해 지원,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고용·산업위기지역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추경에 합의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목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담은 안건도 의결했다. 이 회의 위원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이밖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 따른 조치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 대체역을 신설하는 등의 대체복무 제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 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소방시설이 설치된 5m 이내인 곳에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및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합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3자 합동추진위’ 구성해야”

김광수 의원, 정책토론회서 제안

‘3·3·3 전략’으로

재지정 속도전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4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에 대한 진단 및 지정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끝인가? 시작인가?”를 주제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 및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과 관련 “지난 12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은 객관적 정책결정이 아닌 총선 전략지역인 부산·경남지역을 우선적으로 감안한 정치적 논리에 기인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을 위해 국회와 전라북도,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3자 합동추진위원회’ 구성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주최하고 전북희망연구소가 주관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마련 토론회 ‘전북 제3금융중심지, 끝인가? 시작인가?’가 24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좌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을 공식 제안한다”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3자 합동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연금 특화, 농생명, 남북경협 등 ‘금융중심지 3대 비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이른바 ‘3·3·3 전략’으로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에 대해 속도전을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금융타운의 핵심이 되는 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방안, 전북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정주여건 개선,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

터와 호텔 건립,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중심지로 한 국내의 주요 금융기관 전주사무소 개설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주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희준 전주대학교 교수가 ‘전북 금융중심지 선택인가, 필수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나석훈 전북도청 일자리경제국장, 김태중 전북도민일보 수석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전북 제3금융중

심지 보류에 대한 진단 및 지정 필요성’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 갔다.

한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 및 방안 마련 토론회’에는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 당대표,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공동주최하고 전북희망연구소가 주관하였으며,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추진 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진성 기자

성경찬 도의원, 민주 중앙당 체육특위 부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을 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남과 북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체육특별위원회가 크게 기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성경찬 의원은 “그동안 체육계에 몸담아온 경험을 살려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경찬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원내부대표와 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성경찬 의원은 태권도 한국 청소년대표팀 코치 및 감독을 역임해 대한민국체육포장 및 고창군 군민의장 체육장을 수상했다. /김진성 기자

김종숙 군산시의원 사퇴

학력을 위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종숙 군산시의원(63·여)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24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전날 사퇴서를 제출해 김경구 시의회 의장의 결재로 사퇴를 처리했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 4년제 대학에 편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석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